

## Current Undergraduate Education of Clinical Pharmacology in Korea

임 영 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임상약리학에서는 질병치료의 한 근간인 약물요법의 질적 향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약물작용 및 약물치료지식에 근거하여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약물의 부작용이나 약물이상반응을 최소화시키려는 적정약물요법을 추구하고자 한다. 의학의 발전과 함께 이미 개발되어 쓰이고 있는 약물에 대한 임상약리학 및 치료의학적인 지식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새로운 작용의 수많은 신약들이 도입됨에 따라 약물관련 지식과 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임상 의료현장에서 합리적인 처방과 함께 적정약물요법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신약개발에 있어서 임상시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후보 신약들의 치료효과와 안전도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약리학자의 역할이 급증하고 있으며, 약물유전체학의 맞춤형요법과 같은 새로운 약물치료법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의과대학 학부과정에서 임상약리학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심도있게 이루어졌을 때만이, 현행의 약물치료는 물론이요, 미래의 새로운 약물치료법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서구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학부수준에서의 임상약리학에 대한 교육이 지극히 결핍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최근의 현황조사를 근거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임상약리학 교육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38개 의과대학중의 약 1/4 (26.3%) 정도에서만 독립된 임상약리학 강좌를 지니고 있었으며, 나머지 3/4정도의 대학에서는 아직까지 독립된 임상약리학 강좌가 없었다. 또한 이들 의과대학에서의 평균 임상약리학 강의 시간수도 13.5시간으로서 약 15여년 전에 유럽전역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WHO가 실시한 조사에 나타난 평균 교육 시간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임상약리학에 대한 강의는 독립된 강좌보다는 주로 기존의 기초 약리학 강의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응답대학의 65%), 평균 시간수도 6.4시간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정규 약리학 강좌 내에 임상약리학 강의가 포함되어 실시될 때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임상약리학 강의 시간수의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가 지적되었다. 독립된 임상약리학 강좌가 이루어지는 대학에서의 강의도 단지 30%의 대학에서만 자체적인 임상약리학자에 의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약리학 강좌 내에 임상약리학 강의가 실시되는 대학에서는 임상약리학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임상약리학 전공학자의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임상약리학에 대한 교육방식, 교육시기, 및 교육주제 등이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 학부과정에서의 임상약리학 교육현황은 그 교육의 시대적인 필요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기초의학 교육 및 임상의학 교육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전문가 단체 또는 관련 학회들의 시급한 상황 인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임상약리학 교육에 대한 양적이고 질적인 증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심화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의과대학에서도 임상약리학에 대한 독립된 강좌를 서둘러 개설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임상약리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각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